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부흥회 10월 8일부터 4일간

강사 김선운 목사, 기도로 준비를
영적 각성과 진리 체험의 계기 삼도록

이미 예고한 대로 10월에 부흥회가 개최된다.

10월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4일간 개최될 부흥회의 강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헌팅돈벨리 한인장로교회를 시무하는 김선운 목사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성

도들의 영적 각성과 진리 체험, 그리고 나태해진 신앙을 기도와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김선운牧사는 서울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 그리고 템플

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चेस्넛힐대학교와 파이넛머스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세계복음운동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에바다부
수화 찬양제 개최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감성운 목사,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수화 찬양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수화 찬양제는 에바다부 설립 4주년 기념 행사이면서 동시에 총동원 주일 행사인데, 외부 농아자 단체 소속 농아자들을 초청하여 수화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오늘 제27대 장로 선거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제27대 장로 선거일이다.

이번 장로 선거는 본지를 통해 이미 발표한 대로 29명의 후보 가운데 15명을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해 뽑으며, 총헌교회 등록 세례 교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 봉사하며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장로들을 뽑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후보에게 표를 찍을 것인가는 3면에 게재된 논단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중헌프리즘

◎...지난 주일(20일) 저녁에 있었던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헌신예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약 6천 좌석의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는 전도에 대한 열의를 새롭게 깨워해주었고, "말세에 성취될 예언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지금 이 바로 전도할 때이고, 이 일을 수행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전 교

인이 동참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행사는 1,700여명을 교회로 인도한 대전중부교회 송경호 집사의 전도 간증이 실감 있게 가슴을 파고 들어와 참석자들에게 전도 의욕을 고취시켰다.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의 구호를 온 교인들이 북창하는 가운데 전도 작성서를 작성하고, 오는 11월 1일의 총동원 주일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11월 1일 주

일엔 각 교회학교 예배 및 집회가 없고 2시간 간격의 7번 예배를 통하여 전도 활동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은 자기 가정의 가족 전원이 참석해야 되고, 그 동안 기도하면서 작성한 태산자를 꼭 데려오고, 주변 및 이웃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불신자들을 교회로 강권적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헌의 온 가족들은 꼭 10명 이상씩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해오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 및 집회,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고, 교통 수단 제공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많은 등록 인원으로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강의 내용도 좋은데다가 강사진이 수준급이라 전국의 교역자들이 대거 몰려와 성경 강해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카메라 초점



▲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지난 9월 20일 헌신예배를 드리고 전도대상자를 작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접어들었다.



▲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운전자사연협회 세미나

'92 예수 사랑 큰 잔치
기도와 참여로 준비하자

전도작성서 계속 작성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헌신예배 시간에 전도대상자를 작성하였다. 전도작성서를 제출한 성도는 1,590명이고 초청대상자는 22,905명이다.

이날 전도작성서를 제출치 않은 성도들은 전도작성서에 작성자의 이름과 소속, 초청대상자를 기입하여 하루속히 구역장을 통해 교역자나 교구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9. 20	초청대상자 작성 시작
9. 23~10. 28	특별구역장 훈련
9. 27~10. 18	총헌전도대 교육
9. 27	차량스커 부착
10. 1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사진전 준비
10. 3	대학·청년 연합 집회
10. 8~11	부흥회
10. 24~25	교구별, 전도회별 기도회
10. 26~31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한 새벽 기도회
10. 28~11. 1	전화 및 개인 접촉
11. 1	'92 예수 사랑 큰 잔치

한편 '92 예수 사랑 큰 잔치의 행사 일정이 다음과 같다. 이 일정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온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동참하기를 바란다.

실업인선교회
특별 간증 및 찬양의 밤

- 일시 : 9월 28일(월) 오후 7시(만나홀) - 저녁식사
 오후 8시(베다니홀) - 집회
- 간증자 : 최성욱 목사(예인교회 담임), 최안순 사모
 - 부부 뚜렛 가수 출신
- 실업인선교회 회원 부부는 필히 참석바라며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참석을 환영합니다.



충헌강단

신성종 목사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 14)

마태복음 7장 초두에는 신앙 생활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은 앞에 제시되었던 생활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1.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다보면 두 가지 문, 즉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먼저 좁은 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이에 반하여 넓은 문이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조품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좁은 문의 특징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좁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통 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하면 과거에 쓰던 살림살이를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하듯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옛사람이 가졌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려고 할 때라든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베들레헴의 성탄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성탄교회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작고 좁은 문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빈 몸으로 들어가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이란 꺼리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좁은 문은 회전식 문과 같습니다. 회전식 문은 짐을 가지고 들어

가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좁은 문은 협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협하고 좁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 일은 그리

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단한다는 것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앞만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좁은 문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13:24) 신앙 생활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며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3.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첫번째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끝없이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것이 곧 자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지혜를 얻게 되며 능력을 얻고 하늘 나라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혼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좁은 문입니다. 세번째로,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동행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게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네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동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결단이 중요 합니다. 결단을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아야서는 안됩니다. 앞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섯번째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 동시에 좁은 문은 영광의 문이며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좁은 문은 인기는 없는 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7:13) 넓은 문은 자기를 성취하는 문입니다.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4 결론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윤택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넓은 문은 외형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I.

우리 교회는 9월 13일 공동의 회를 열어 제27대 장로를 선택하기로 결의하였고, 오늘은 배수공천을 받은 후보 29명 중에서 투표를 통한 선거 방식에 의거, 장로를 피택하는 날이다.

교회가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대사를 행하는 것으로서 축복받을 일이다. 우리 총현교회 등록 세례교인은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가지고 투표하는 일에 응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총현교회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뽑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참여하기 바란다.

II.

장로에 해당하는 어원을 연구하여 보면, 히브리어로는 '자켄,' 헬라어로는 '프레스 뷔테로스'로서 '연상의, 연로한, 머리가 하얀, 턱수염이 난'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뜻은 연장자라는 사실이 장로의 권위를 갖게 한다거나 공적 임무를 맡을 때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노련한 경험을 겸비한 원로나 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헬라적 용어에서도 보면 연령보다는 인품과 인격, 지혜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하고 영적업무를 은혜롭게 총괄하고 매사를 정당하고 질서있게 처리해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택해서 세운 사람들을 보게 된다. 어떤 때는 연로한 자를 택해서 썼고, 어

▶ 총현논단 ◀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을 것인가?

윤용규 목사
(예배위원회 · 제12교구 지도)

떤 때는 연소한 자를 택해서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딤후3:6) 새로 입교한 자보다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온 신앙 경력을 참작했을 것이다. 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행21:16) 아주 신앙 연조가 깊으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오랜 제자를 선택했음을 볼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4:12)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을 보면, 비록 연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령과는 관계없이 신앙적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타의 모본이 된 사람을 선택했음을 볼 수 있다.

III.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을 것인가? 대략 다섯 가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1. 신앙적 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행6:3),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주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도덕 생활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성경이 논한 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딤후3:2~5) 이런 도덕적 토대 위에 신앙적 자질을 잘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3. 주님께서 피흘려 값주고 사신 총현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1:12)라는 고백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또 자신이 지사충성(至死忠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부탁할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진 사람,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딤후2:2) 지도자로 아버지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임을 알고(고전4:2) 충

성령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
선출해야

성하는 중에라도 교회가 더 큰 충성을 요구할 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4.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살전5:12,

13). 무엇보다도 화목케 하는 직책인 줄 알고(고전5:18) 겸손히 되 성도간의 교제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화목의 씨로 화목의 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5. 언행심사가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같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 줄 수 있는 사람(벧전4:8)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요일4:18) 교회의 평안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를 잘 뽑는다는 것은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혹이라도 인연관계 때문에, 지연관계 때문에 뽑는다는 인척관계니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뽑는다는 이런 저런 정실관계로 뽑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자라면 교회의 성장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투표해야 되고 얻어 지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투표해야 되며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의 확장을 바라보면서 뽑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뽑아야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권 행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선택될 것이고, 이번에 선택된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총현기도원

목회 내조자 기도 훈련 내일 시작

"기도로 내조합시다"를 주제로

우리 교회는 전국의 목회 내조자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목회내조자 기도 훈련을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 새벽까지 총현기도원에서 개최한다.

이미 한국교회성장연구원(원장 신성종 목사) 주관으로 전국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사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파를 초월하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및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훈련을 "기도로 내조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김창인 목사(총현교회 원로목사, 북한선교회 이사장), 신성종 목사(총현교회 당회장, 총현기도원 원장), 유창무 목사(총현교회 부목사, 총현기도원 지도), 주선에 교수(전 장신대 대학원 원장, 동대학원 명예교수), 현신애 권사(신애복음선교회 회장)가 강의를 맡는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목회 내조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충만하도록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대학·청년부 연합 집회
10월 3일 갈릴리홀에서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 청년3부가 연합하여 오는 10월 3일 오전 9시부터 "청년의 위상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갈릴리홀에서 연합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이 세번째인 이 연합 집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네 개 부서가 하나님 안에

서의 영적 교제를 통해 총현교회 안에서의 청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각 부서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전통과 능력을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회는 이병각 목사(대학부 지도)의 강의, 공동체 한마당, 찬양 집회 등으로 진행된다.

총현전도대 교육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각 전도회 지회들의 전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 전도 활동을 실시합니다.

- 일시 : 9월 27일~10월 18일 주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 장소 : 갈릴리홀
- 대상 : 각 전도회 지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 교육 후 교구별로 특수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등부
만남의 잔치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10월 4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의 잔치를 개최한다.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 행사는 주일 고등부 예배 시간(오전 9시 갈릴리홀)에 특별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는데, 특히 4일에는 1학년울, 11일에는 2학년울, 18일에는 3학년울 중심으로, 각각 학년의 특징을 살려 실시된다.

전히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

믿음, 그리고 확신

김양홍 목사(배기운동본부 홍보분과 지도)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난다.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그의 믿음은 굳이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동행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백부장으로서의 상품의 가치가 없었던 병들고 늙은 하인을 그대로 버려두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병을 고쳐줄 것을 구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 많았을까를 생각해본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까지 체면 유지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했었을까?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하인의 병 때문에 피정복민의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러나 그에게 체면 따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부끄러움도 버려야 했다. 남들이 보고 있지만 계급장이 자랑

스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소망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명깊은 일이다. 그의 믿음 속의 확신은 대단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지도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을 때 하인의 병이 곧 나았다고 했으니 그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체면과 부끄러움을 버릴 때 바로 전도가 시작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를 위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 때에 따라서 마귀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을 이용한

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대사를 행할 수가 없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있다. 11월 1일에는 35,000명이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이 10명씩을 초청하자는 결심을 하고 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을 알 때 아무도 핑계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할 때에 총동원 전도 주일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만큼 큰가? 확신이 있는 믿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입시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계속



고입, 대입, 취업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고등부 주관으로 계속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베다니홀에서 갖게 되는 이기도회는,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뿐 아니라 입시 자료의 제공, 효과적인 수험생 관리에 대한 경험 및 간증을 나누고 있다. 이 기도회에는 현재 매일 8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하고 있으며, 기도회 후에는 기도카드 작성 및 개인 상담을 통하여 신앙 지도도 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가 요망된다.

노후 음향기재 교체 및 회수

음영실에서는 오래되어 고장난 마이크 스탠드 및 각종 음향기재를 회수, 교환해준다.

- 접수 : 사무국
- 갈릴리홀(교한 209)
- 기간 : 9. 27~10. 11

직 원 모 집

- 직종 : 비디오 기사
- 제출서류 :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 사무국
(교육관 102호)

예배 안내위원 교육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한 예배 안내위원 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안내위원 전원은 해당 시간에 필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날짜 : 10. 4
- 오전 8시 20분 : 1부 안내위원
- 오전 10시 20분 : 2부 안내위원
- 낮 12시 20분 : 3부 및 영어, 일본어 안내위원
- 오후 2시 20분 : 4부 및 새가족부 안내위원
- 장소 : 본당 202호(예배위원회실)

● 구역예배 ●
(1992. 10. 2)

전도에 힘쓰는 생활

- 본문 : 디모데후서 4장 1절~8절
- 찬송 : 264장, 265장
- 요절 :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파할 것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명령을 하면서 재림의 심판자로서의 주님과 그의 나라를 함께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1.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우리는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전도의 시기를 포착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회와 시기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한번의 전도도 하지 못하고 몇 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섭리해주시는 것입니다.

2. 사람들이 복음에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임무를 다해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것을 즐겨워하며 허탄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딤후4:3, 4). 이러한 모습

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신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도인의 임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1:16).

3. 복음을 전파하는 일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명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상급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생애를 드러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 결론

80세된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할아버지, 지금 심는 나무에서 사과를 따 먹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내 나이 80인데 그럴 수 없겠조. 난 평생 사과를 즐겨 먹었는데 내가 심은 나무에서는 따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심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도 먹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후세들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린 복음은 언젠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적용 및 기도

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